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20. 8. 25.(화) 10:00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환경보전국	보도자료 PRESS RELEASE	산림휴양과장	이창흠	☎ 710-6760
		산림보존팀장	신익주	☎ 710-6781
동영상(웹하드) :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 :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	후속자료 : 없음	

소나무재선충병 예찰 강화로 청정 소나무림 보호

- 예찰방제단, 헬기·드론 이용한 정밀예찰로 선제적 대응 -

-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숲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예찰 활동은 재선충 발생지역과 미발생지역으로 대상지를 구분하여 실시되며 지상예찰, 드론을 이용한 예찰, 항공기를 이용한 예찰이 이루어진다.
 - 지상예찰의 경우 예찰방제단(16명)이 육안으로 확인된 감염의심목의 시료를 채취하여 세계유산본부에 검경을 의뢰해 피해목 파악에 나선다.
 - 드론예찰의 경우 인력에 의한 확인이 어려운 해발 400~600m 소나무림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경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.
 - 항공예찰의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지상 및 드론으로 예찰하기 어려운 비가시권 산악지역과 재선충병 발생지 등 도전역을 정밀예찰하게 되며, 각 기관(도청,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, 제주도, 서귀포시) 및 방제전략 수립 용역팀(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)이 탑승한다.

※ 항공예찰 일정: '20. 9. 9 ~ 9. 11(3일간)

□ 제주도는 예찰결과를 ‘제8차(‘20.10.~ ‘21.4.) 제주맞춤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전략’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.

○ 제주도는 7차 방제(‘19. 10월부터 ‘20. 4월말까지)에 138억원을 투입하여 고사목제거 82천본, 나무예방주사 2,554ha를 실시하였으며, 올해 새로 출몰한 재선충병 매개충(솔수염하늘소) 확산 차단을 위하여 항공방제(1,000ha×3회반복)를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